

결핵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화가 와토

글 박희숙(화가, 미술 칼럼니스트)

-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갑자기 들이닥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요즘은 병에 걸려도 치료약이 발달해서 그리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결핵이었다. 치료약이 발달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고통 받았다.

결핵으로 재능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화가가 와토다.

장 앙투안 와토(1648~1721)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평범한 일상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표현했다. 와토의 대표작이자 로코코 미술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작품 <키테라 섬의 여행>은 연인들이 사랑의 섬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표현했는데, 이 작품에서 와토는 허구와 실재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해안으로 밀려온 파도의 거품에서 비너스가 태어난 곳이 키테라 섬이다. 그 이후 키테라 섬에 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면 왼쪽에 멀리 배가 보이고 연인들은 배에 오르고 있다. 꼬마 천사들은 연인들을 에워싸고 있고 오른쪽 큰 나무 아래 비너스의 조각상은 여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조각상 아래 푸른색의 드레스 위에 붉은 색 겹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고 연인인 남자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커플은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고 화면 중앙 지팡이를 들고 있는 뒷모습의 남자는 오른손으로 여자의 허리를 잡고 재촉하고 있지만 여인은 머뭇거리며 뒤를 바라보고 있다.

이 장면은 사랑의 단계를 나타낸다. 남녀가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연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관계이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사랑의 후회를 상징한다.

공중에는 꼬마 천사들이 둥근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데 사랑의 신 큐피드다. 큐피드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연인들이 타기 위해 정박해 있는 배도 진짜 배가 아니라 장식품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그림이 당시 유행하던 연극에서 영감을 얻어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비너스의 모습은 우아한 옷차림의 여인들이 나체일 때의 모습을 암시한다.

■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1717년, 캔버스에 유채, 129×194,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42 보건의세계 20100102

아기 천사가 비너스의 몸에 월계수 화환을 두르고 있고 비너스의 발밑에는 책과 무기들이 버려져 있다. 그것은 사랑은 지식이나 전쟁, 예술보다 강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와토는 미술학도 시절 클로드 질로라는 당대 최고의 재능 있는 무대장식가에게 사사를 받아 작품의 배경으로 연극적인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의 과장된 제스처를 즐겨 그렸다. 연극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병약했던 와토에게 매혹으로 다가왔다.

연극을 주제로 한 와토의 작품은 <메체티노>다. 메체티노는 16~17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희극의 등장인물로 기사의 시종이나 심복 역할의, 주로 짝사랑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이 작품에서 메체티노는 애절한 눈빛으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창가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메체티노의 뒤로 보이는 나무가 무성한 정원에는 여인의 조각상이 있다. 조각상은 메체티노가 사랑하고 있는 여인을 암시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메체티노>-1717~1719년, 캔버스에 유채, 55×43,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 <질>-1718~1720년 캔버스에 유채, 184×149,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이 작품에서 메체티노가 입은 어릿광대의 옷차림은 사랑의 고통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의 현실을 암시한다.

평생 결핵으로 고생했던 와토는 치료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요양까지 했지만 병이 완치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다. 병중에 있는 자신의 심증을 담은 작품이 <질>이다. 이 작품은 그가 파리 교외에서 결

핵으로 죽기 전 최후의 작품 중 하나다. '질'은 프랑스에서 광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로서 17세기 곡예사 겸 희극배우였던 '질 르 나에'에서 나온 말이다.

무대 위 광대가 하얀 옷을 입고 팔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다. 소매의 맑은 주름과 엉덩이까지 내려온 옷은 광대에게 옷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채워진 단추는 광대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큰 옷웃과 달리 바지는 짧다. 분홍 리본으로 묶은 신발 위로 보이는 발목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욱더 짧아 보인다. 광대의 옷차림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바보스럽게 보인다. 광대의 코와 뺨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붉게 칠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밝고 경쾌한 광대의 이미지보다는 고독하고 서글픈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화면 왼쪽에는 당나귀 뒤에 탄 남자 도토리레가 보인다. 화면 오른쪽 당나귀를 탄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레안드로, 이사벨라 그리고 카피타노의 상반신이 보인다. 인물들은 이탈리아의 코메디아델라르테에 등장하는 네 명의 캐릭터로서 와토가 작품에 자주 묘사한 인물들이다.

이 작품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당나귀로 변하는 '다나에'의 초연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다나에'가 상연되기 전에 짧고 익살스러운 촌극인 '퍼레이드'를 광고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연극 '다나에'에서 질의 바보스러움을 상징하기 위해 당나귀가 무대로 종종 올라갔다. 예민하고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와토는 이 작품에서 수심에 잠겨 있는 광대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심증을 담아냈다. 이 작품은 관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극장 광고판으로 제작되었다. †

